

추석 대목 앞뒤 극조생감귤 출하 ‘초긴장’

서귀포시 10~30일 ‘출하 전 품질검사제’ 전격 시행
드론 띄워 과원 조사… 상품기준 미달 ‘과태료 폭탄’

서귀포시가 추석 연휴(9월 24~27일) 대목을 앞둔 시점에서 극조생감귤 출하가 시작되며 ‘노심조사’하고 있다. 극조생감귤 출하 초기의 유통 흐름에 따라 향후 제주산 노지감귤의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는 2026년산 극조생감귤 출하 시기를 맞아 상품외감귤 유통을 차단하고 고품질 감귤 출하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극조생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극조생감귤 단속 조치 결과는 총 87건·3만2022kg이며 연도별로는 ▷2023년산 32건·2만6393kg ▷2024년산 32건·4139kg ▷2025년산 23건·1490

kg이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은 총 41건·1만2528kg에 대한 3507만원이며 연도별로는 ▷2023년산 5건·9565kg·1593만원 ▷2024년산 13건·1473kg·682만원 ▷2025년산 23건·1490kg·123만원이다.

2023년 극조생 감귤 출하 시기와 추석 명절이 겹치면서 명절 전 감귤을 출하하기 위해 제대로 익지 않은 감귤을 출하하려다 출하 전 품질검사서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체적으로 평년 90%를 보인 것과는 달리 당시 합격률이 70%대 중반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출하 전 품질검사제’ 검사 대상은 10월 1일 이전 극조생감귤을 수확·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으로서, 신청기간은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다. 수확 예정일 최소 3일 전까지 시청 감귤유통과에 유선(전화 064-760-2723)으로 신청하면 된다.

상품품질기준을 벗어난 감귤을 출하하면 200만~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품질검사원 해촉과 6개월간 위촉 금지 등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중단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품질검사는 서귀포시 감귤유통지도요원이 신청 과원을 방문해 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로 실시한다. 검사 샘플 10과 중 80% 이상이 당도 8.5브릭스(° Brix) 이상이면 품질검사에 합격하며, 결과는 현장에서 즉시 통보받을 수 있다.

시는 이 기간에 드론을 활용해 10월 이전에 극조생감귤을 수확·출하하는 과원을 집중조사하고 품질검사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또한

품질검사에 합격한 과원이라도 상품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감귤을 출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노지감귤 발매기(포전) 거래가 3.75kg(1관)당 매년 평균 1000원씩 오르면서 대체적으로 좋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 노지감귤 출하시기 등을 감안해 극조생감귤 출하 초기에 품질검사제를 통해 고품질감귤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와 농가 등에 따르면 현재 서귀포시지역의 노지감귤 발매기 거래는 3.75kg당 지난해 4000~5000원에서 올해는 5000~6000원선에 형성되고 있다. 타이벡 감귤 농가에서는 1만원가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지역의 극조생감귤 재배면적 비율은 12~13% 수준으로 최근 감소 추세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올해 하반기 진행된 함덕32의 심야책방 프로그램.

함덕32 제공

밤의 서점, 책으로 이웃과 만나다



<5> 문화예술연구소 함덕32(하)

책 매개 문화 사랑방 역할
마을 예술인 참여 눈길
이주민·원주민 함께 소통

문화예술연구소 함덕32에서는 해가 진 뒤에도 책을 매개로 함께 어우러지는 ‘심야책방’이 운영된다.

심야책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함께 운영하는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으로 동네 서점을 주민이 부담 없이 드나드는 문화 사랑방으로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함덕32는 2022년 제주 지역 참여 서점으로 선정된 뒤로 꾸준히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낮에 문화 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해 북토크와 낭독회, 연주 무대, 체험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함덕32에서 운영하는 심야책방은 무대에 서는 강사와 작가 대부분이 함덕과 조천에 사는 문화예술인들이라 가르치는 이도, 배우러 오는 이도 모두 한동네 이웃인 셈

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나무로 만드는 나만의 책갈피’를 시작으로 함덕의 4·3과 자연을 시 낭독과 피아노 연주로 풀어내는 무대와 함덕의 꽃자왈 ‘상장머체’를 둘러싼 공론의 자리가 마련됐다. 여기에 함덕중학교 최라엘 학생이 지은 그림책 ‘Things I Like’와 육지에서 함덕으로 이주해 정착한 작가가 자신의 정착기를 담은 책 ‘나는 여기 잘 도착했다’에 대한 북토크도 성황리에 진행됐다.

하반기 무대는 모든 강사를 함덕 거주 예술인으로 채웠다.

여행작가 정은주가 여행을 콘텐츠로 만드는 법을 들려주는 북토크 ‘놀면 뭐 하다니?’로 문을 열었고 육지에서 조천으로 이주해 정착한 문화기획자 박민진의 북토크 콘서트 ‘문화기획 가이드 쇼’와 극작가 신혜은이 마을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이야기로 엮는 법을 나누는 ‘마을문화 스토리텔링 만드는 방법’이 뒤를 이었다. 오는 9일에는 함덕 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소재로 한 소설가 김지혜의 ‘함덕피담살롱’ 이야기 마당이 이어진다.

배진섭 대표는 “심야책방은 함덕에 사는 예술가와 주민이 책을 사기에 두고 만나는 자리”라며 “이주민이든 원주민이든 누구나 편히 찾아와 마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으로 서점을 가꿔가고 싶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제작 지원=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 승인 취소 일단 면했다

사업자 측 산지복구비 예치 약속 2년째 미이행
도, 내년 3월까지 이행 조건으로 취소 보류 결정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이 개발사업 시행 승인 취소 직전까지 몰렸다가 기사회생했다.

2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1일 청문을 진행한 끝에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 승인 취소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청문은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자 측이 산지복구비 예치 약속을 2

년 넘게 이행하지 않아 진행됐다.

제주도는 2024년 7월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산지복구비를 도가 지정한 계좌에 미리 예치할 것을 주문했다.

산지복구비는 곳자왈에서 추진되던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이 중도에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 성격 비용이다. 사업자 측이 자금을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개발을 포기하면 산림만 훼손되기 때문

에 복구 비용부터 지정 계좌에 예치하도록 해 해당 비용이 개발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한다.

도 관계자는 “산지복구비를 내년 3월까지 예치하는 조건으로 개발사업 시행 승인 취소를 보류했다”며 “만약 이번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단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산지복구비용에 대해선 영업정보에 해당하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 산1번지 일대 74만4480㎡ 부지에 792억원을

투입해 야영장, 축사체험장, 지역생태관리실, 숙박시설 등 관광휴양시설을 짓는 것이다. 당초 이 사업은 동물원과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제주사파리월드’란 이름으로 지난 2015년 시작됐지만 곳자왈 난개발 논란과 지역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라지는 주민 수용성 문제로 인해 2021년 개발사업 심의 과정에서 최종 부결되자 제주자연체험파크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22년 이같이 변경된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 계획을 허가했으며, 지난 2025년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5년 간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서귀포시 스마트 텀블러 세척기 본격 가동

시청·도서관·읍면 등 설치

서귀포시가 공공기관 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일상 속 다회용컵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연내

주요 공공시설 15개소에 순차적으로 스마트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운영한다.

시는 올해 국비 5000만원을 투입해 8월말 기준 3개소(시청 2, 중앙

도서관 1)를 운영 중이며 나머지는 연말까지 12개소(시청 4, 읍면 2, 동 5, 도서관 1)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도 도입·설치 중인 스마트 텀블러 세척기는 고온수 세척과 살균·열풍건조 기능

을 갖춰 텀블러의 내·외부와 뚜껑까지 위생적(99% 살균효과)으로 세척할 수 있다. 일반 세척은 4분, 쾌속 세척은 30초가량 소요된다.

시는 세척기 이용실적을 데이터로 관리해 자원순환 정책의 성과분석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KOREA PRESTIGE BRAND AWARDS 2022